

증권

Sector Issue Brief

2026. 09. 02

모멘텀 약세구간 지속. 업황지표는 바닥권에 근접

Check Point

- 8월 거래대금, 회전을 동반 급감
- 부동산 PF 규제기조 변화
- 업종주가 모멘텀 약세구간 지속되나 시장대비 초과하락 구간은 일단락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8월 거래대금 급감. 업황지표는 일단 바닥권에 근접

- ▶ 8월 일평균 거래대금(ETF제외)은 49.6조원으로 7월의 66.3조에 비해 추가로 감소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7~8월 누적 일평균 거래대금은 57.9조원으로 2분기(4~6월)의 91.1조원에 비해 36% 감소. 7월 이후 증시부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가 거래대금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음. ETF 거래대금은 5~6월 한 때 38조원에 달했으나 8월에는 18조원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 7~8월 해외증시 거래대금 역시 2분기 대비 30% 가량 감소
- ▶ 큰 폭의 국내외 거래대금 감소와 KOSPI 부진, AI/반도체 성장섹터 추가하락은 3분기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감소 및 운용이익 부진으로 나타날 전망. 3분기 증권업종 실적은 2분기 대비 큰 폭의 감익이 불가피
- ▶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금리 상승이 증시로부터의 역머니무브를 촉발하며 고객예탁금 규모가 100조원을 하회. 하지만 지수조정과 함께 8월초 27조원까지 감소했던 신용잔고의 경우 최근 33조원을 회복하며 레버리지 투자수요가 일부 재개 되는 모습
- ▶ 6월 초 400%에 달했던 시가총액 회전율은 200% 이하로 낮아지면서 역사적 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따라서 추가적으로 거래강도가 약화될 여지가 크지 않고, KOSPI 추가하락 폭이 제한된다면 거래대금 규모 또한 현 수준에서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전반적 업황지표는 일단 바닥권에 근접한 상태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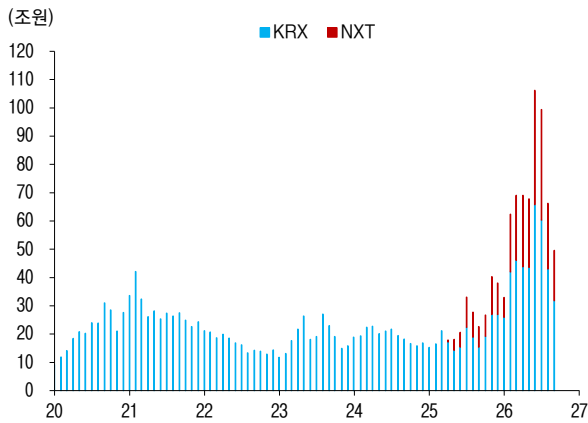
부동산PF 정책기조 규제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선회

- ▶ 8/13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 부동산 PF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자금공급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원에서 48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 고금리 여건과 공사비 상승으로 위축된 PF시장에 대해 규제기조에서 지원조치로 정책 스탠스 변화
- ▶ 26년 3월말 금융권 PF 대출잔액은 115.5조원으로 2년전에 비해 14% 감소. 대출잔액 감소로 연체율은 여전히 높으나, 문제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충당금 커버리지비율은 70%에 달해 금융권 추가손실 부담은 크게 경감된 상태. PF 신규취급액 또한 증가하고 있고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딜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 대형증권사를 중심으로 IB 수익기회 확대 예상

모멘텀 약세구간 지속.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하락 여지는 크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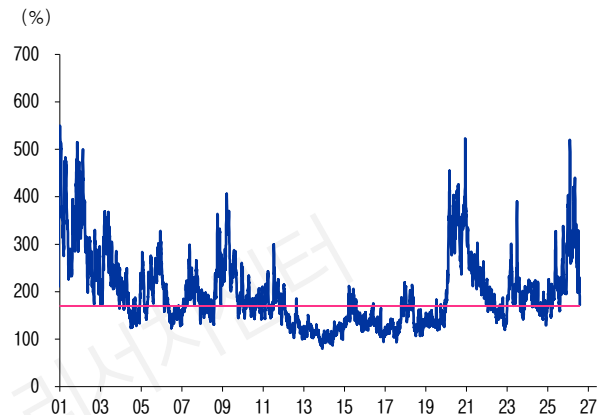
- ▶ 하반기 금리인상 여건하에서 실질유동성 축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기조가 이어지며 증권업종 실적 관련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 추가 모멘텀 약세구간이 이어지고 있으나 브로커리지 관련 업황지표가 바닥권에 근접한 가운데 IB실적은 양호한 흐름이 예상되고 채권운용 여건 또한 추가악화 가능성이 낮아 업종주가의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하락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
- ▶ 주요 증권사의 평균 PBR은 0.95배로 이미 연초 수준으로 하락. 평균 예상 배당수익률 또한 6%에 달해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적/선별적 접근전략은 유효할 전망

그림1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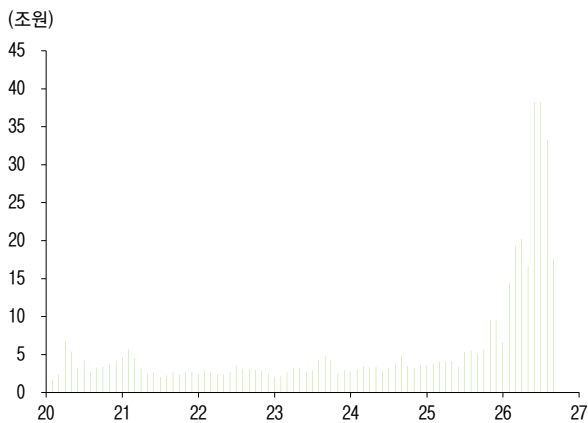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시가총액 회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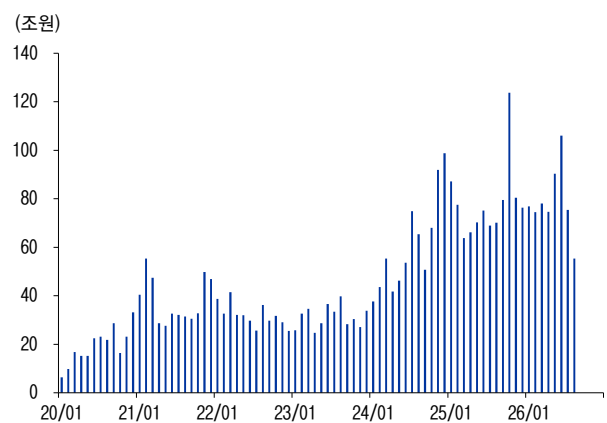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ETF 거래대금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해외 거래대금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고객예탁금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신용잔고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現 26.3→47.8조원+α

부동산PF 보증·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퍼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자료: 금융위원회

그림8 부동산 PF 보증/자금공급 확대

<표> PF보증 공급목표

구분	'23	'24	'25	'26	'27	'28
				당초	확대(3개년 평균 약 28.7조원)	
주공공	6.8	5.4	3.7	6.0	9.0	12.0
HUG	3.4	8.5	11.5	10.9	14.0	18.0
합계	10.2	13.9	15.2	16.9	23.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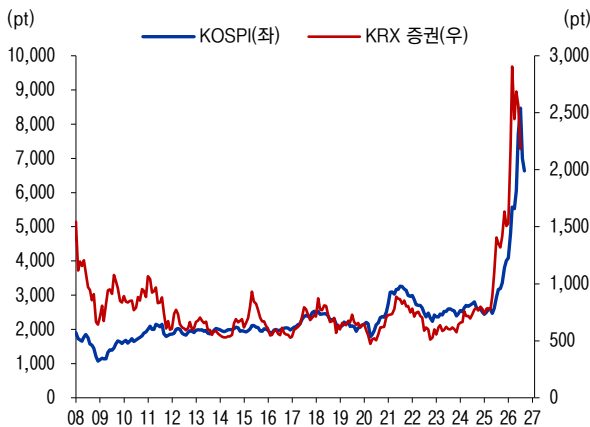
①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3조원+α 신규 조성(수요에 따라 2년차 추가 확대조성 검토) → 신속한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② (신디케이트론)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을 적극 확대공급(현재 1조원 조성→5조원)하여 정상화 신속지원

③ (금융업권 자체펀드) 업권별 자체 정상화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부실사업장별 정상화계획 점검 및 밀착관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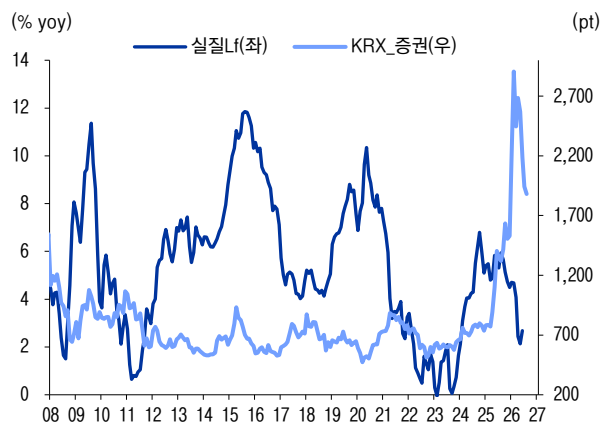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그림9 KOSPI와 증권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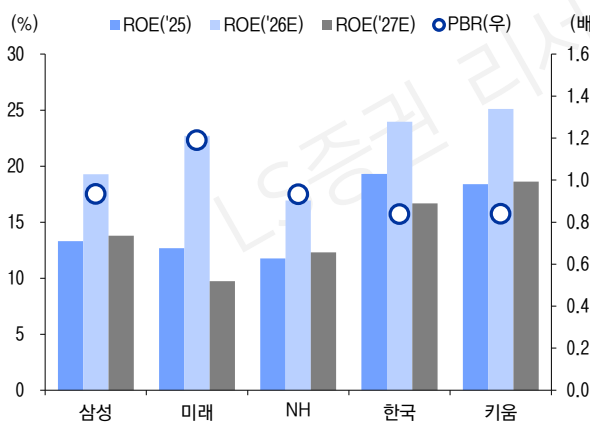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실질유동성과 증권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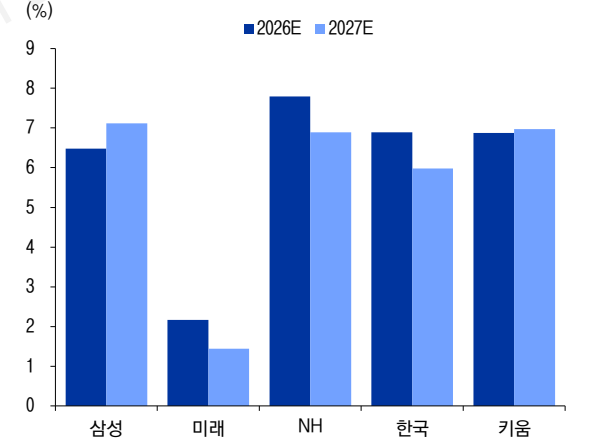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주요 증권사 밸류에이션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주요증권사 예상 배당수익률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90.3% 9.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pm 15\%$ 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7. 01 ~ 2026. 0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